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ISSUE BRIEF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글로벌 보건협력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협력 발전방안과 한국의 역할

들어가는 말

최근 국제사회는 팬데믹, 기후위기, 분쟁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고통과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졌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보여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보건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제보건기구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고, 한국 내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바이오 협력의 주체로서의 기업,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한국 개발협력 민간 부문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CONTENTS

1. 한국의 ODA 추진 방안과 보건 ODA 협력 방향
2. 한국 보건협력 민간부문의 주요 활동
3. 국제기구가 바라보는 한국의 보건협력 역할
4. 시사점

1. 한국의 ODA 추진 방안과 보건 ODA 협력 방향

● **한국 정부는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국제기구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 및 시민사회의 협력 증대를 위한 ODA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정부-시민사회 정책 협의회'에 기반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화하고자 함
- 최근 '다자협력 추진전략' 을 개정하였으며, UN 및 기타분담금, 다자개발은행(MDB) 지분율 등을 세계 10위권 위상에 맞춰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정부·기업·NGO·국제기구 등의 개별적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업 대규모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ODA 사업전략 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의 보건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 형성 및 보건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에 힘쓰고 있음**

- 2022년 확정액 기준 한국의 보건 분야 ODA 예산은 4,250억원이며, 총 12개 시행기관이 1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 분야는 한국 총 ODA의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 한국 정부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후 COVAX AMC를 통해서도 백신 접근의 형평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전략인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 한국 보건협력 민간부문의 주요활동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바이오 협력의 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 팬데믹 동안 많은 공여국이 ODA 자금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ODA를 꾸준히 늘려오면서 KOICA 사업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 등에 대한 국제민간부문의 관심을 증대시킴
- 한국 시민사회의 주체는 ODA 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국제기구의 한국 CSO, NG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국제기구 협업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한국 진단기기나 의료 제약 제품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이 증가함

● **글로벌 보건협력에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 주체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한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의 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 NGO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잘 수행하며 시의적절하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NGO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함
-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공공 보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의 성과들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 공공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 바이오 기업의 진단기기 및 의료 제품은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살리고 국제기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서 협업을 주도하고자 함

● **민간 부문과의 보건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 주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제기구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며, 보건과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협력 생태계 확장, 정부의 R&D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건 사업은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한국 바이오 기업의 인허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함
- 국제기구는 임상 경험, 데이터 확보, 지속가능성 등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한국 바이오 기업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가 요구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민관협력,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기관, 정부가 함께 협력할 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Collective Partnership을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함
- 민관협력,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 펀딩 등을 마련해야 함

3. 국제기구가 바라보는 한국의 보건협력 역할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제보건기구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고 글로벌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제기구명	보건 업무	수행 역할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양질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는데에 선도적인 역할 담당
세계백신면역연합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	신속한 백신 공급은 자국이 아닌 글로벌 협력의 아젠다를 우선순위로 둘 때 가능함을 강조하며, 백신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73개국에서 192개국으로 확대	코로나19 관리를 주도하였고 160개국에 18억개 이상의 백신을 전달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데이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씀	자금조달에 있어 제한적인 역할 수행과 표준 데이터 수집, 타 주체들의 활동을 확인하며 국가 및 국제 정책 수립을 담당
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지역간의 협력을 통합하고 '지역 백신 자문 그룹'을 통해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의 전문가들을 통해 백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언을 제공	백신 물량이 부족했던 2021년에 900만 달러를 지출하여 백신 공급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민관협력,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한국은 병원체 검출과 해결 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 역량, 잘 구축된 보건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보건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됨
- 한국 정부는 백신과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보건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
- 다른 공여국에 비해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재원 제공 뿐만 아니라 백신 제조업체 및 백신 연구개발기관과 같은 주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한국은 보건 분야 다자협력에 참여해오고 있으나 역량에 비해 제한적인 참여를 보였고, 보다 더 유연한 전략 및 혁신적인 백신 공급망 확보가 필요해보임**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GDP 대비 원조의 비율이 권고치에 도달해야하며, 보건협력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초기 단계의 질병관리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면 여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임
- 적절한 자금 및 재원 조달은 보건 시스템에 필수적이므로, 복합적인 보건 위기인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는 공여국으로서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임
- 부유한 국가에 비해 저소득 국가들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비상 자금 조달, 백신 생산 역량의 다각화 및 강화, 백신 공급망 혁신 등이 필요함
- 한국의 백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되며, 다양한 부문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4. 시사점

본 컨퍼런스는 한국의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이 보건 분야 개발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관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보건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각 주체가 보유한 강점 및 제한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보건협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둘째, 글로벌 보건협력에 있어서 양자원조와 더불어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는 한 국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주체가 함께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Unitaid 등의 글로벌보건기구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국이 글로벌 보건협력에 효과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보건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 적절한 재원 조달이 요구된다. 복합적인 보건 위기인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는 공여국으로서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며, 백신 제조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